

## “한국형 결혼만족도척도” 개발 연구\*

### A Study of Development of the Korean-Marital Satisfaction Scale\*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부교수 정 현 숙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Chung, Hyunsook

#### ◀ 목 차 ▶

- |                              |                     |
|------------------------------|---------------------|
| I. 연구의 목적                    | IV. 연구결과            |
| II. 연구방법                     | V. 검사의 활용           |
| III.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의<br>이론적 배경 | VI. 결론 및 논의<br>참고문헌 |

#### <Abstract>

This article presents the development of a self-report measure of Korean Marital Satisfaction Scale. Based on 'Family Process Model' and interviews with 183 married couple, 3 domain structures with 74 items were identified, which included interactional process, emotional process, and intellectual process. It was administered to 289 couples to test reliability and validity.

Overall reliability coefficients were high for each of the individual domains( $\alpha=.62$  to  $\alpha=.93$ ). Face validity, content validity, concurrent validity and construct validity respectively were demonstrated good. Additionally, divergent validity with scales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was observed. These results support the reliability and psychometric validity of the Korean Marital Satisfaction Scale in the assessment of key dimensions of marital process of Korean couples.

**주제어(Key Words):**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 결혼의 질(Marital Quality), 측정도구(Measurement), 한국형 결혼만족도척도(Korean Marital Satisfaction Scale)

\* 이 논문은 200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0-041-D00359)

## I. 연구의 목적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개인의 평가인 결혼만족도는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이용되고 있다. 상담이나 임상현장에서는 결혼생활의 문제영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결혼만족도 척도가 이용되며(예: Boughner와 동료들, 1994), 결혼생활의 다양한 영역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효용성도 높게 지적되고 있다(예: Rosen et al., 2000; Juni & Grimm, 1994).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학문분야에서 결혼만족도를 중요 종속변인이나 독립변인으로 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외국의 척도를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결혼만족도에 대한 일련의 비교문화적인 연구들(예: 정현숙, 1997, 2001; Freeston & Plechaty, 1997; Green & Woody, 1998; Imamoglu & Yesim, 1997; Shek, 1995, 1998; Wadsworth, 1999)은 서구와는 다른 결혼문화권에서 기존 척도의 하위영역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연구에서 사용된 결혼만족도 측정도구는 부부 중심의 평등적 부부관계를 기초로 하는 미국의 측정도구를 번역 이용함으로써 문화적 오류가 많았으며, 또한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결혼만족도 관련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타당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며, 척도이용에서도 개념적인 혼란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정현숙 200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현숙(2001)은 한국실정에 맞는 결혼만족도 척도에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점을 강조하였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결혼만족도에 대한 분석 수준과 개념정의와 관련된 문제이다. 가족체계에서 결혼만족도는 측정개념의 분석수준에서는 개인수준의 데이터이며, 자료수집의 분석단위에서는 관계수준의 데이터이다. 반면 결혼의 질과 적응은 분석수준에서는 관계수준의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결혼만족도는 부부간의 이차관계에서의 결혼의 질에 대한 개인의 만족 정도를 측정하는 개인적인 평가에 의한 척도

이므로 두 사람의 다양한 상호작용과정을 나타내는 결혼의 질이 이론적으로 제안이 되고 결혼의 질 하위 영역에 대한 배우자 각자의 만족정도가 결혼만족도로 측정되어야 한다. 또한 결혼만족도 척도 개발을 위해서는 이론에 근거해야 하며, 개념의 정교화를 위해 측정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예를 들면, 남성과 여성의 경험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척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밖에도 결혼만족도 측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척도가 결혼의 질에 대한 평가적 문항과 특별한 행동에 대한 문항 및 부부의 상호과정유형에 대한 문항이 혼합되어 문항이 구성되어온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구의 우애적 결혼과 그 특성이 다르며 결혼생활에서 친인척관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우리의 결혼관이 포함된 측정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에 기초한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크게 문헌고찰과 2회에 걸친 예비조사 와 1회의 본 조사로 구성되었다. 문헌고찰과 2회의 예비조사를 통해 한국형 결혼만족도 개발을 위한 이론적 관점과 기초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척도 문항이 구성되었다. 개발된 척도를 중심으로 본 조사에서는 신뢰도 분석 및 하위요인에 대한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1차 예비조사

결혼만족도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는 <표 1>과 같이 4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국내·외 관계문헌과 결혼만족도 관련 측정도구 고찰을 통해 기존의 도구에서 하위영역으로 이용된 애정교환, 여가활동 등 26개 영역을 선정하였다. 두 번째는 1999년 10월에서 12월까지 우리나라 가족 전문가 20명에

〈표 1〉 결혼만족도 척도구성을 위한 예비조사

자료	방 법	대 상
문헌	국내·외 관계문헌 고찰 및 결혼만족도 관련 측정도구 분석	국내·외 관계문헌
가족 전문가	하위 영역과 문항에 대한 중요도를 Del-Pie 방식으로 평가	가족학전문가 12명
결혼한 부부	결혼생활에서의 성공, 만족과 관련된 내용의 전화인터뷰	연령, 결혼기간, 계층, 성별을 고려한 183명
인터넷	K연구소 홈페이지 토론광장이용	의견을 올린 46건의 사례

게 문헌고찰에서 선정된 26개 영역에 대해 ‘우리의 문화와 결혼제도를 고려할 때 결혼생활의 만족을 구성하는 중요 하위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평가하게 하였으며, 각 하위영역의 상대적인 중요성도 함께 평가하도록 질문지를 우편으로 우송하였다. 우편조사에 응답한 총 12명의 가족학 전문가들의 응답을 중심으로 중요도가 높다고 지적된 영역을 1차적으로 하위영역으로 선정하였다.

세 번째는 현재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들 중에서 결혼기간, 계층, 성별을 고려하여 ‘어떤 경우에 결혼생활이 만족스러운지, 혹은 행복하다고 느끼는지’를 전화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화인터뷰 대상은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전화국의 국번리스트를 기초로 체계적 표집으로 선택되었다. 전화번호는 난수표를 이용한 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선정하였으며, 전화인터뷰는 2000년 12월 한달 동안 4명의 면접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전화면접 대상은 총 183명으로 남자 51명(28%)과 여자 132명(72%)이다. 이들의 평균 결혼기간은 14.8년(범위 0-50년)이며, 평균연령은 40.7세(범위 22세-68세)이다<sup>1)</sup>. 정현숙(1997)의 RKMS (Revised-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로 현재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이들의 결혼만족도 점수는 7점 척도에서 남자는 평균 5.77(sd=1.08)이며, 여자는 평균이 5.05(sd=1.58)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들이다. 네 번째 방법은 2000년 11월 한달 동안 K연구소의 홈페이지 토론광장에 “당신의 결혼, 어떤 때 행복·불행하십니까?”라는 주제에 올린 46건의 사례가 예비문항 선정에 이용되었다.

## 2. 2차 예비조사

1차 예비조사에서 선정된 문항을 중심으로 3개 영역과 18개 하위요인을 구성하여 각 하위요인별로 5~7문항의 예비척도를 제작하였다. 이상의 예비측정도구를 2001년 3월과 4월에 가족학 전문가 10명에게 우편으로 구성타당도와 안면타당도 및 문항의 중요도를 검토하였다. 또한 결혼한 부부 15쌍의 인터뷰를 통해 문항의 적절성과 문항에 대한 이해도 등을 검토하여 질문지의 지문과 문항을 수정하여 최종 94개의 측정문항을 선정하였다.

## 3. 본 조사

### 1) 표준화 대상과 자료수집

한국형 결혼만족도척도의 표준화를 위한 본 조사는 2000년 5월~6월에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결혼한 부부 350쌍으로 가족생활 주기와, 가족유형(초혼),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인구학적 특징(취업유무, 연령, 결혼기간 등)을 고려하고, 아내와 남편을 모두 포함하는 의도적표집을 하였다. 전체 설문지 중 305개의 질문지가 회수되었으나 부부가 함께 응답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부실한 질문지를 제외한 289쌍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본 측정도구의 질문지 문항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척도개발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응답자

1) 이들의 결혼기간은 0~5년이 29%(53명), 6~10년이 17%(31명), 11~15년이 12%(22명), 16~20년이 8.2%(15명), 21~25년이 18%(33명), 26~30년이 7.7%(14명), 31년 이상이 8.1%(15명)으로 총 183명이다.

들의 적극적인 응답이 중요하므로 사례비와 질문지를 면접자가 개별적으로 부부에게 주고 응답을 밀봉하여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 2) 타당도 측정을 위한 측정도구

본 조사를 위한 측정도구는 크게 3종류이다. 부부들의 성, 연령, 결혼기간, 자녀관계, 직업 등의 인구학적 특성을 묻는 질문과, 최종 검사 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형 결혼만족도척도'가 포함되었으며, 척도의 구인타당도와 준거관련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부부의 부모역할긴장 척도, 자존감 척도, 심리적 스트레스척도, RKMSS, RDAS의 결혼만족도 하위영역이 이용되었다.

부부의 부모역할긴장은 Perlin과 Schooler(1978)의 부모긴장척도(Parenting Stress)를 이용하였다. 부모긴장척도는 4점 Likert척도로 10개의 항목(좌절감, 긴장감, 성공, 걱정, 괴로움, 불행, 정신적으로 지침, 만족, 자신감)에 대해 부모역할 수행에서의 느낌을 측정한다. 요인분석 결과 한 요인으로 묶이며, 요인 부하량이 낮은 '걱정'을 뺀 9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 지수는  $\alpha=.91$ 이다.

Schumm과 동료들(1983)의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KMSS)을 수정한 정현숙(1996)의 RKMSS는 4문항으로 결혼생활에 대하여, 배우자로서 아내(남편)에 대하여, 아내(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아버지(어머니)로서의 남편(아내)에 대한 만족정도로 측정한다. 응답은 매우 만족(7)에서 매우 불만(1)의 7점 척도로 높은 점수는 결혼생활에서의 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없는 신희기 가족이 포함되어 있어 KMSS와 RKMSS 두 척도를 모두 이용하였다.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만족감을 포함한 RKMSS의 내적합치도 지수는  $\alpha=.94$ 이며, 세 문항으로 구성된 KMSS는  $\alpha=.96$ 이다.

또 다른 타당도 척도로 Spanier(1976)의 Dyadic Adjustment Scale(DAS)을 수정한 Revised-DAS(Busby & Christensen, 1995)의 8문항과 1문항 결혼만족도 하위척도를 이용하였다. 8문항의 척도는 합의(의사결정, 가치, 애정), 만족(안정성, 갈등), 적응(활동, 토의)의 3영역의 결혼생활에 대한 5점 Likert

척도이며, 이중 부정적 특성을 나타내는 5문항을 결혼불만족 척도로 이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이들 5문항이 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적합치도 지수는  $\alpha=.77$ 이다. 한 문항척도는 "여러분의 결혼생활을 종합해 볼 때 여러분의 만족정도를 표시해주시시오"의 1점(매우 불행하다)에서 7점(아주 만족한다)의 척도이다.

남편과 부인의 심리적 스트레스는 Radloff(1977)의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의 20문항을 이용하였다. 요인분석결과 두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긍정적 심리상태"요인과 "신체적 증상"의 두 개의 요인이 발견되었으며 내적합치도 지수는 각각  $\alpha=.80$ ,  $\alpha=.84$ 이다. CES-D는 일상생활에서의 심리적 상태나 신체적 증상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체적 증상"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경험하는 것이며, "긍정적 심리적 상태" 요인은 자신을 잘 통제하며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win과 LISREL8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문항분석을 위해 가족학 전문가 10인에 의해 안면타당도와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관점에서 하위요인과 문항을 선정하였으므로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주요인분석과 사각회전을 이용한 요인분석과 LISREL8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은 내적합치도지수 Cronbach  $\alpha$ 를 계산하였으며, 기존의 측정도구와의 비교를 통한 준거관련타당도와 공인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 III.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의 이론적 배경

### 1. 결혼만족도의 개념정의

결혼만족도는 관계에서의 개인의 주관적인 신념

이나 생각(impression)을 나타낸다(Roach, et al., 1981; Sabatelli, 1984). 그러므로 개념적인 분석의 단위는 개인의 지각을 측정하는 개인수준의 개념이다. 그러나 결혼의 질과 적응은 이자관계에서의 질을 측정하는 이자관계의 개념이다. 따라서 결혼만족도는 개념적으로는 이자관계의 특성인 ‘결혼적응도’나 ‘결혼의 질’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며, 결혼의 질에 대한 개인의 만족을 나타내는 개인수준의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부부들의 결혼생활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개인의 만족정도’로 결혼만족도를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다양한 측면에서 두 사람의 상호작용과정을 나타내는 결혼생활에서의 질에 대한 이론적인 기준인 결혼의 질(quality) 하위 영역에 대한 각각의 배우자의 만족정도가 결혼만족도로 측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생활에서의 질에 대한 이론적인 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만족도를 결혼만족도로 측정하였다.

## 2. 한국형 결혼만족도척도의 하위요인 구성의 이론적 기초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이론적 개념으로 정현숙(2001)이 제안한 가족학적 시각에 의한 가족과정모델(정현숙·유계숙, 2001)을 이론적인 틀로 이용하였다. 부부관계의 과정은 가족내의 부부체계 내에서의 상호작용 패턴이다. 여기서 패턴은 가족체계이론에서의 체계의 속성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가족체계이론에서 체계의 개념은 조직화된 요소들 안에서 나타나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패턴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족관계에서의 핵심은 개인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내는 패턴에 있으며, 가족의 체계성을 만들어 내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의 패턴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결혼의 질과 결혼만족도는 부부관계에서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의 질이나 결혼만족도는 다양한 부부상호과정(process)에 의해 형성되는 결과개념이다. 결혼만족도의 하위영역은 부부관계의 과정에서 적용되는 교류적, 정서적 및 인지적 영역인 의사소통과 갈등, 친밀감과 성, 이데올로기와 규칙 등의 하

위요인에 대한 개인의 만족도가 된다. 이러한 결혼의 질에 대한 틀은 비교 문화적으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결혼의 질을 구성하는 하위요소와 문항들은 한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 2차 예비조사와 문헌고찰을 통해 <표 2>와 같은 하위영역과 하위개념이 도출되었다. 예비조사의 내용분석을 통해 이론적 관점에서 제시되었던 많은 내용이 확인되었으며, 정서적 과정의 ‘상호배려’와 인지적·지적과정의 ‘개인적 역할’이 전화인터뷰 결과 새롭게 포함되었다. <표 2>에 포함된 구체적인 항목이 포함된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 1) 교류적 과정(interactional process)

부부관계의 교류적 과정은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의사소통은 가족간의 상호작용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부부간의 친밀성을 증가시키고, 갈등발생시 이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의사소통의 1차적 기능은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형성하는 것이며, 이러한 1차적 기능의 바탕 위에 부가적으로 가족이미지와 가족이념, 가족원간의 경계 등을 형성한다(Galvin & Brommel, 2000; Turner & West, 1998). 따라서 학자들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의 특성을 인정하고, 결혼생활을 시작하기 전부터 효과적인 갈등관리 기술과 함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의사소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부부간의 의사소통의 정도와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은 결혼생활의 질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의사소통은 타인의 욕구나 감정에 대해 인식하면서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 태도를 표현하고 인식하는 것을 포함하며 타인의 욕구나 느낌을 인식하면서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부정적인 의사소통은 부부관계에 역기능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혼관계에서의 갈등은 “배우자간에 생각, 욕구나 행동의 반목(antagonism)이나 불일치(incompatibility)”

〈표 2〉 '한국형 결혼의 질과 만족도 척도'의 하위개념과 구성요소

영역	하위개념	구성요소	
교류적 과정 (interactional process)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부정적 의사소통	
정서적 과정 (emotional process)	친밀감	지적영역	존중
		신체영역	성적관계와 애정표현
		정서영역	여가 및 시간 함께 보내기 상대방배려
인지적 과정 (intellectual process)	이데올로기와 규칙	이데올로기	응집성
			종교적 신념*
		규범적규칙(역할)	가사수행역할
			친인척관계 역할
			부모역할*
			경제적 역할
			개인적 역할(자율성)

\* 자녀 있는 가족이나 종교가 있는 가족 등 관련 가족에게만 적용되는 문항

로 정의된다(Morgolin, 1988, p.195). 가깝고 친밀한 관계인 결혼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정상적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갈등은 결혼생활을 건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이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결혼관계에서 긴장과 문제가 발생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은 결혼생활의 기본적인 질(quality)이다. 따라서 부부간 의사소통의 양이 많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며 효과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는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은 중요한 결혼만족의 영역이다. 또한 차가운 소리나 잔소리 등 “부정적인 의사소통”은 결혼생활의 갈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하위영역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갈등해결”과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교류적 과정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 2) 정서적 과정(emotional process)

가족관계에서 정서적 과정의 가장 중요한 영역은 친밀감이다. 왜냐하면 타인으로부터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 지적인 친밀감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가

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정은 다양한 인간관계에서도 가능하지만 이상적으로는 부부관계 내에서 쉽게 경험된다고 믿어진다. 친밀감이 없는 부부는 문제가 있으며, 부부간에 의미 있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가족은 붕괴된다. 건강가족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건강한 가족은 가족원들이 서로 친밀하며, 이러한 친밀감이 그들을 건강하게 한다고 한다. 물론 가족외적인 다양한 환경이 가족원들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지만, 의미 있는 인간관계에서의 친밀감의 발달을 학습하는데는 가족이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 중의 하나이다(Cox, 1999).

친밀감(intimacy)은 다른 사람과 친밀함을 느끼고 사랑하고 사랑 받는다고 느끼며, 서로 돌보아주고 돌보아진다는 감정과 성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Kieffer(1977)는 “친밀감은 다른 사람과의 강력한 지적, 신체적, 정서적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자아의 실체를 경험하는 것(p. 267)”이라고 정의하였다. Kieffer(1977)의 이론적 관점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과정의 친밀감을 지적, 신체적 및 정서적 영역의 친밀감으로 정의하고 각 하위문항을

설정하였다.

Biddle(1976)은 친밀감은 폭(breadth)과 개방성(openness)과 깊이(depth)의 세 차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폭은 두 사람이 공유하는 활동의 범위를 의미한다. 개방성은 부부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자기개방을 하는가하는 점이다. 부부가 지적이고,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면을 공유할 정도로 충분히 안정감을 느끼고 가깝다고 느끼는가 하는 것이다. 개방성이 있는 부부들은 대부분의 경우 서로에게 솔직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감이 있으며, 이러한 점들이 서로에 대한 존중감을 증진시킨다. 예를 들면, 부부가 성적인 면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가, 혹은 부부가 서로에게 말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깊이는 두 사람이 자신의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가하는 측면이다. 자기노출은 상호작용의 수준을 깊게 한다. Maslow는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매우 깊은 친밀감을 발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정현숙·유계숙, 2001).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지적영역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존중”을, 신체적 영역에서는 “성과 애정표현” 및 “여가 및 시간 함께 보내기”를, 정서적 영역의 하위개념에는 “상대방배려”를 포함하였다.

### 3) 인지적 과정(intellectual process)

인지적 과정에는 크게 규범적 규칙(rules)과 이데올로기(ideology)가 포함된다. 대부분 가족들은 가족생활을 수행해나가는데 지켜야할 일종의 규칙들이 있다. 이러한 규칙은 한 가족의 질서를 유지하고, 행동을 예측해주며, 가족원간의 경계를 명확히 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가족체계내의 규칙 중 많은 부분은 사회적 규범에 의한 규칙이다. 사회적 규범은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행동해야 할 방법을 강화하고 행동해서는 안되는 방법을 금지하는 일종의 신념으로, 규범적인 규칙은 가족유산의 중요한 부분으로 새로운 세대에게 그대로 전수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되어 사용되어진다. 이러한 규범적 규칙을 규제하는 것이 가족의 이데올로기이다. 이데올로기는 집단이나 사회에 존재하는 사고의

집합이나 신념이다. Burr와 동료들(1993)은 가족이데올로기에는 가족패러다임과 종교적 사고 등이 포함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과정의 하위영역에 규범적 규칙과 가족이데올로기를 포함하였다.

규범적 규칙은 부부관계에서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 규범적 규칙 중 외현적으로 표현되는 것 중의 하나가 가족원의 역할수행이다. 부부관계에서의 역할은 도구적인 역할과 주변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역할과 표현적인 역할로 구분된다. 이들 역할 중 표현적인 역할은 위에서 설명한 정서적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여기에서는 도구적 역할과 부부와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규범적 역할이 하위영역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도구적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가정경제와 관련된 도구적 역할이다. 또한 동반자적 결혼에서는 융통성 있는 성역할과 자녀양육, 가사노동에서 개방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관계에서 친인척관계에서의 역할이 결혼만족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 밖에도 1차 예비조사결과 우리나라 부부들은 배우자들의 자율성을 중요한 결혼만족의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용어의 통일을 위해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자율성을 ‘개인적 역할’로 명명하였다.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우리나라 부부들은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할 때나, 매사에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때 등 개인적인 역할을 잘 수행할 때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가족체계적 관점에서 가족개인의 개별화(individuation)와 분리(separation)가 이루어져야 건강한 가족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Anderson과 Sabatelli(1990)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또한 Stinet, Sanders, DeFrain 등이 제시한 건강가족(strong family)적 관점(유영주, 정민자, 1993)에 의하면, 부부 각자의 자율성은 역할수행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가족의 이데올로기는 가족의 목표와 기준, 변화에 대한 규칙, 다양한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어 부부의 결혼만족도의 중요한 하위요인이 된다. 가족의 규칙과 이데올로기의 목적이 가족원들간의

거리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가족의 분리와 결합유형을 확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가족의 응집(cohesion)을 통해 그 가족의 규칙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영역에서 부부간의 응집성은 결혼의 질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1차 예비조사결과 우리나라 부부들은 이데올로기 영역의 “중교심”을 중요한 결혼만족의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데올로기 영역에 “응집성”과 “중교심”을 포함하였으며, 규범적 규칙영역에는 “가사수행역할”, “친인척관계에서의 역할”, “부모역할”, “경제적인 역할”, “개인적 역할”을 포함하였다. 종교적 신념과 부모역할은 종교가 있는 부부와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하위영역이다.

### 3. 최종 검사 문항 구성에서의 고려사항

본 연구에서는 2절에서 제시한 이론적 기초 위에 정현숙(2001)의 연구에서 지정한 ‘한국형 결혼만족도척도’ 개발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반영되었다. 우선, 한국인의 결혼이 서구의 우애적 결혼과 다른 특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념적으로 이상으로 생각하는 결혼과 자신들이 가치를 두는 것의 차이가 현저하게 존재한다는 주장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관점으로 문항을 구성하기보다는 현재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183명을 대상(1차 예비연구)으로 이들이 생각하는 결혼생활에서의 만족과 불만을 일으키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응답을 기초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친인척관계의 영향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규범적 규칙에서 친인척관계의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친인척관계에서의 구체적인 부부의 행동을 척도에 포함시켰다. 또한 결혼만족도 척도를 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령과 가족생활주기를 고려한 문항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다양한 연령과 가족생활주기에 있는 대상을 통해 예비문항을 선정하였으며, 남녀간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하위영역 중 ‘친인척관계 역할’과 ‘가사수행역할’은 남편과 아내용의 별도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족생활주기와 연령에 따라 결혼만족도의 하위 영역에 대한 중요도가 차이가 난다는 가정 하에 연령과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다른 척도를 개발하기보다는 단일척도를 개발하였다. 즉, 연령동시집단(cohort)의 특성은 결혼에 대한 기대와 가치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생활주기와 연령 등에 따라 다른 척도를 개발하기보다는 연구대상자들의 결혼에 대한 기대와 가치를 측정하여 세대에 따라 결혼만족도 점수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여 가족발달주기에 따른 가중치를 주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결혼만족도의 시대적 차이는 각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이 결혼동시집단과 연령동시집단(cohort)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통해 추후 검증하고자 한다.

### 4. 척도의 구성과 반응양식

본 연구에서는 두 사람의 다양한 상호작용과정을 나타내는 결혼생활에서의 질에 대한 배우자의 만족 정도를 결혼만족도로 정의하였으므로 <표 3>과 같이 결혼의 질과 결혼만족도를 함께 측정하였으며, 남편용과 아내용의 별도의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척도의 응답은 0~4점의 5점 Likert 척도이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의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은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결혼한 부부 289쌍이다. 이들은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인구학적 특징(취업유무, 연령, 결혼기간 등)을 고려하고, 아내와 남편을 모두 포함하는 의도적 표집으로 선정되었다. 이들의 인구학적인 특성은 <표 4>와 같다.

본 연구대상은 289쌍의 부부로 이들의 교육수준은 남편의 65%, 부인의 46.4%가 대졸 이상이다. 부인의 51.4%는 주부이며, 남편의 직업은 경영관리직이 25%로 다른 직종보다 약간 높은 비율로 표집되



〈표 3〉 부인용 결혼의 질과 결혼만족도 문항과 지시문의 예

문항	결혼의 질 척도					결혼만족도 척도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런 행동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니까?					이 상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보통	항상 일어난다			이주	보통	매우		
1. 우리는 식사시간 등에 대화를 나눈다	0	1	2	3	4	0	1	2	3	4
2. 남편은 나에게 차가운 말을 한다	0	1	2	3	4	0	1	2	3	4
3. 우리부부는 의견 일치되어 함께 일을 추진한다	0	1	2	3	4	0	1	2	3	4
4. 남편과 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일치한다	0	1	2	3	4	0	1	2	3	4
5. 남편은 바깥에서의 일을 나에게 이야기한다	0	1	2	3	4	0	1	2	3	4

〈표 4〉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남편 빈도 (%)		아내 빈도 (%)				빈도 (%)	
교육 수준	초등학교졸	4	1.4	5	1.8	연령 (남편)	26-30	48	16.9
	중졸	8	2.9	14	5.0		31-40	53	18.7
	고졸	62	22.1	99	35.5		41-45	42	19.0
	초대, 전문대졸	24	8.6	31	11.1		46-50	49	17.3
	대졸	127	45.4	100	35.8		51-55	29	9.8
	대학원 이상	55	19.6	30	10.8		56이상	12	4.2
직업	주부, 무직	2	0.7	148	51.4	연령 (아내)	26-30	46	16.3
	단순노무직, 기능직	13	4.6	4	1.4		31-35	54	19.1
	판매서비스직	47	16.5	27	9.4		36-40	51	18.0
	사무직	53	18.6	30	10.4		41-45	60	21.2
	교사	27	9.5	22	7.6		46-50	48	17.0
	전문기술직	7	2.5	1	0.3		50이상	13	4.6
	경영관리직(과장이상)	72	25.3	10	3.5	자녀수	없음	56	19.4
	전문직	47	16.5	30	10.4		1명	60	20.8
	기타(학생포함)	17	6.0	16	5.6		2명	137	47.4
							3명	35	12.1
소득	없다	2	0.7	134	47.5	가족 형태	4명	1	0.3
	100만 이하	27	9.7	67	23.8		핵가족 확대가족	244	84.4
	101만이상~150만이하	46	15.9	33	11.7			45	15.6
	151만이상~200만이하	94	34.5	28	9.9	결혼 기간	1년 이내	26	9.0
	201만이상~250만이하	74	10.0	3	1.1		2-5년	49	17
	251만이상~300만이하	50	18	10	3.5		6-10년	48	16.7
	301만이상~350만이하	14	5.1	6	2.1		11-15년	45	15.6
	351만이상~400만이하	19	6.8	0	0		16-20년	40	13.9
	401만이상	27	9.7	1	0.4		21-25년	59	20.5
							26-30년	21	6.6
		평균 = 257.1 SD = 146.8		평균 = 75.5 SD = 99.4					

었으나 직업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남편과 부인의 평균연령은 각각 40.9세, 38.4세이며 각 연령집단 별로 연령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자녀수는 평균 1.5명이며, 자녀가 없는 가족이 19.4%, 1명이 20.8%, 2명이 47.4%, 3명 이상이 12.4%이다. 가족형태는 84.4%가 핵가족이다. 연구대상의 결혼기간은 평균 13.1년(sd=8.55)으로 신혼기부터 결혼기간이 35년까지의 부부이다.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볼 때 도시 중산층이 많이 표집되었으며, 가족생활주기와 결혼기간, 소득, 직업 등이 고르게 분포되었다.

## 2. 타당도 분석

한국형 결혼만족도척도의 타당도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안면타당도와 내용타당도, 구인타당도, 수렴타당도, 준거관련타당도를 검사하였다. 타당도 분석과정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안면타당도와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한국형 결혼만족도척도의 예비측정 도구는 가족

학 전문가 10명에 의해 안면타당도와 내용타당도 및 문항의 중요도가 검토되었으며, 결혼한 부부 15쌍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문항의 적절성, 문항에 대한 이해도 등을 검토하여 질문지의 지문과 문항을 수정하였다.

### 2) 구인타당도

안면타당도와 구성타당도 분석을 거친 3개 영역 94개의 문항에 대한 영역별 하위요인의 구인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하위요인별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는 <표 5>, <표 6>, <표 7>, <표 8>과 같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낮은 문항을 제거하고 요인간 상호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문항을 조절하였다.

<표 5>와 같이 교류적 과정은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과 “부정적 의사소통”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효율적 의사소통”은 부부간에 의사소통의 빈도가 많으며, 자유롭게 서로에게 감정과 의견을 나타내는 특성을 나타낸다. “부정적 의사소통”은 상대방에게 차가운 말이나 잔소리, 신경질 등 부

<표 5> 교류적 과정의 요인분석 결과

문항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부정적 의사소통	$h^2$
우리부부는 대화가 잘 통한다	.82	.02	.69
우리는 각자 원하거나 느끼는 것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한다	.79	-.06	.59
남편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	.73	.11	.61
남편은 내 생각이나 의견을 이해한다	.73	.06	.57
남편은 내가 물어보는 것을 성실히 대답해 준다	.73	.09	.56
남편과 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일치한다	.69	-.01	.54
우리는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상의한다	.68	.00	.46
남편은 나에게 감사의 표시를 한다	.64	-.01	.41
남편에게 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56	-.06	.30
우리는 식사시간 등에 대화를 나눈다	.56	-.05	.27
남편은 하루에 있었던 일을 그날그날 이야기 한다	.53	-.02	.27
남편은 나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드러낸다	.53	-.19	.27
남편은 나에게 차가운 말을 한다	-.00	.59	.24
남편은 나에게 신경질을 낸다	.02	.58	.34
남편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폭언을 한다	.00	.57	.34
남편은 나에게 잔소리를 한다	-.13	.47	.18
Eigenvalue	5.75	1.21	
설명변량	.83	.17	

〈표 6〉 정서적 과정의 요인분석 결과

문 항	존중	여가 및 시간 함께 보내기	상대방 배려	성(性) · 애정표현	h <sup>2</sup>
남편은 나의 자존심을 세워준다	.81	.01	-.05	.06	.68
남편은 나의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인다	.76	.08	-.02	-.08	.55
남편은 내 기분을 이해하고 공감해 준다	.72	.01	.02	.15	.71
남편은 나의 인격을 존중해 준다	.77	-.05	.09	.07	.73
남편은 나의 입장을 존중한다	.71	-.01	.12	.08	.75
남편은 부부간에 예의를 지킨다	.49	-.06	.33	.09	.62
우리 부부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 준다	.46	.15	.35	-.01	.56
남편은 나에게 용기를 준다	.38	.02	.38	.13	.65
우리는 함께 여행을 간다	.04	.86	-.09	-.01	.69
우리는 함께 외식을 한다	.04	.82	-.05	.01	.69
우리는 나들이를 함께 한다	-.08	.80	.12	-.00	.68
우리는 여가를 함께 보낸다	.03	.71	.09	.09	.71
우리는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낸다	.09	.67	.10	-.09	.53
우리는 외부의 모임에 함께 참석한다	.09	.45	-.00	.15	.36
우리 부부는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갖는다	.09	.38	.14	.128	.57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한다	-.13	.30	.38	.02	.27
남편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다	.18	.05	.68	-.12	.58
남편은 나에게 정신적으로 의지가 된다	.17	-.04	.62	.03	.56
남편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	.09	.06	.56	.16	.61
남편은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써준다	-.02	-.03	.52	.36	.60
남편은 내가 피곤하거나 아플 때 챙겨 준다	.31	.03	.45	.04	.57
남편은 나와 약속을 잘 지킨다	.29	.12	.46	.05	.55
남편은 나의 부탁을 미루지 않고 즉시 해준다	.17	.17	.35	.11	.47
우리 부부는 서로를 챙겨준다	.23	.14	.35	.24	.66
우리 부부는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	.13	.06	-.06	.72	.65
남편은 나에게 애정표현을 한다	.07	-.01	.07	.68	.60
우리 부부는 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한다	.06	.14	.03	.55	.42
남편은 나의 성적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06	-.02	.15	.50	.40
Eigenvalue	16.42	1.77	0.65	0.58	
설명변량	.80	.11	.04	.03	

정서적 성격의 의사소통이 특성이다.

정서적 과정의 요인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과 같이 정서적 영역은 “존중”, “여가 및 시간 함께 보내기”, “상대방배려”, “성·애정표현”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존중” 요인은 부부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며,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 “여가 및 시간 함께 보내기”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 부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가 하는 정도이다. “성·애정표현”은 적극적 애정표현과 성에 대

한 만족도를 포함한다. “상대방 배려”는 일상생활에서 배우자에 대한 배려정도를 나타내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인지적 과정은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하였듯이 규범적 역할과 이데올로기의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개념화하였으므로 〈표 7〉과 〈표 8〉과 같이 규범적 역할과 이데올로기를 구분하여 요인분석 하였다. 〈표 7〉과 같이 규범적 역할은 “부모역할”, “개인역할(자율성)”, “가사역할”, “경제적인 역할”, “친인척 관계 역할”의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가사역

할"과 "친인척관계 역할"은 남편과 아내가 다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8〉과 같이 인지적 과정의 이데올로기 영역은 "종교심"과 "응집성"의 두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종교심"은 부부가 종교문제에 대해 일치하며, 종교적인 가르침에 충실하며 신앙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부부의 특성이다. "응집성"은 부부가 가치관이 같으며, 일체감과 동질감을 느끼는 정도로 구분

된다. 이상의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한국형 결혼만족도척도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 틀에 적절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인타당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하위구조간의 관계에 대한 구인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LISREL8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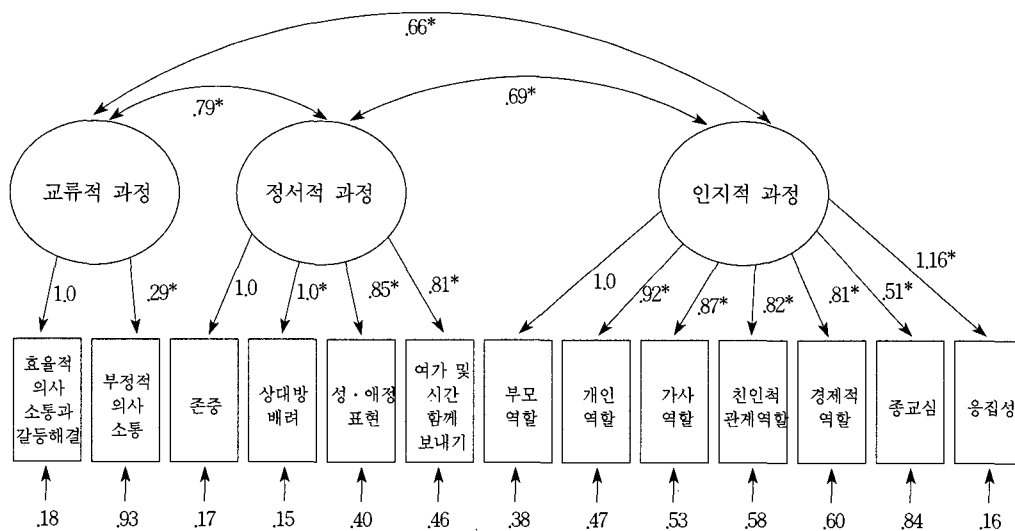
〈표 7〉 인지적 과정(규범적 역할 영역)의 요인분석 결과

문 항	부모 역할	개인 역할	가사 역할	경제 역할	친인척 관계역할	h <sup>2</sup>
우리부부는 부모역할을 잘 하도록 서로 도와준다	.81	.01	-.01	-.04	.02	.63
우리부부는 자녀양육을 상의하여 결정한다	.78	-.12	-.05	.21	.05	.71
남편은 아버지 역할을 잘 한다	.74	.23	.03	-.18	.00	.64
우리는 부모역할의 어려움을 알고 서로의 역할을 격려한다	.69	.03	.16	.04	.00	.71
남편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	-.01	.82	.03	-.03	.03	.68
남편은 열심히 살려는 생활태도를 가졌다	.07	.72	.00	.09	-.00	.65
남편은 자신의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한다	-.02	.67	-.00	.08	.03	.51
남편은 매사에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을 한다	.20	.39	-.01	.20	.09	.51
남편은 가사를 잘 도와준다	-.08	-.00	.85	-.09	.00	.61
나는 가사역할 수행이 부담스럽다(recode)*						
가사역할 책임을 남편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06	-.01	.64	.08	-.03	.49
아내는 집안살림을 열심히 한다*						
남편은 가사의 어려움을 알고 격려해 준다	.08	.12	.62	.02	.06	.60
아내는 살림을 지혜롭게 잘 한다*						
나는 가사부담과 관련된 갈등을 남편과 대화로 해결한다	.19	-.08	.46	.19	.05	.48
나는 가사관련 요구를 아내에게 자유롭게 말한다*						
우리는 저축 등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세운다	-.02	.10	-.04	.84	-.06	.70
우리는 소비계획을 세워 실행한다	.20	-.03	.15	.47	-.04	.43
우리가정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	-.10	.13	-.04	.45	.15	.30
우리는 경제권을 누가 갖는가에 대해 합의한다	.03	-.02	.09	.44	.06	.28
남편은 처가에 잘한다	.04	-.00	-.00	-.01	.80	.65
아내와 나의 어머니는 사이가 좋다*						
남편은 친정친척의 화목에 일익을 담당한다	-.00	.02	.18	-.03	.72	.68
아내는 시댁친척의 화목에 일익을 담당한다*						
남편은 처가를 도와주는 것에 호의적이다	.01	.10	-.06	.14	.67	.62
아내는 시집을 도와주는 것에 호의적이다*						
남편은 처가문제에 대해 불평한다(recode)	.11	.14	-.04	-.01	.20	.12
아내와 어머니 둘 다 나에게 문제를 호소한다(recode)*						
Eigenvalue	7.55	1.28	0.90	0.71	0.56	
설명변량	0.69	0.12	0.08	0.06	0.05	

\* 남편용 척도 문항임

〈표 8〉 인지적 과정(이데올로기 영역)의 요인분석 결과

문항	종교심	응집성	$h^2$
우리부부는 신앙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낸다.	.88	.19	.80
우리는 종교적인 가르침에 따라 생활한다.	.84	.28	.78
우리는 종교행사에 함께 참석한다.	.78	.16	.64
우리는 종교문제에 대해 일치한다.	.64	.22	.46
우리부부는 공동의 목표를 함께 성취해 나간다.	.19	.79	.66
우리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생각한다.	.18	.78	.64
남편과 나는 많은 부분에 대해 서로 이해한다.	.21	.74	.60
우리부부는 가치관이 같다.	.24	.73	.59
Eigenvalue	3.88	1.30	
설명변량	0.75	0.25	



〈그림 1〉 “한국형 결혼만족도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LISREL 추정치(\*  $p < .05$ )

한국형 결혼만족도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전체모델에 대한  $\chi^2$ 값은 265.21 ( $df=62$ )이며,  $RMSR$ (Root Mean Square Residual)=.0032, Goodness of Fit Index=.94, Normed Fit Index=.95, Nonnormed Fit Index=.95로 전반적인 합치도 수준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경로의 LISREL 추정치는 〈그림 1〉과 같이 교류적, 정서적, 인지적 과정의 하위요인들 모두  $p < .05$  수준에서 유의하다. 따라서 부부과정의 각 하위요인들은 교류적, 정서적, 인지적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측정변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교류적 과정과 정서적 과정간의 상관계수는 .79, 인지적 과정과 정서적 과정은 .69, 교류적 과정과 인지적 과정은 .66으로 세 요인은 서로 상관이 있으며 같은 구인을 나타내는 구성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제시한 교류적, 정서적, 인지적 과정과 각 하위요인은 한국형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적절한 하위요인임을 알 수 있다.

## 3) 수렴타당도

검사가 이론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인과 높은 상관을 보일 때 수렴타당도가 있다고 해석된다(이은해, 199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높다고 이론적으로 제시되는 심리적스트레스척도를 통해 수렴타당도를 살펴보았다. 수렴타당도 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와 같이 심리적 스트레스척도의 하위영역인 “신체적 증상”은 “한국형 결혼만족도척도”의 부정적 의사소통을 제외한 모든 하위영역과는 모두 부적관계를 나타낸다. “긍정적 정서상태”와는 부정적 의사소통을 제외하고 모든 하위영역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한국형 결혼만족도척도”는 수렴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4) 준거관련타당도

준거관련타당도는 검사점수와 외적준거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검사가 준거행동을 어느 정도 잘 설명하고 예언하는지를 수량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예언타당도와 공인타당도가 있다(이은해, 1995).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 척도와 준거관련 준거척도의 수치들을 본 자료수집 시 함께 측정하였기 때문에 공인타당도(concurrent validity)를 통해 준거관련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Schumm과 동료들(1983)의 KMSS와 Spanier(1976)의 Dyadic Adjustment Scale(DAS)를 수정한 Revised-DAS(Busby et al, 1995)의 결혼불만족 척도의 각 하위요인과 공인타당도를 계산하였다. 공인타당도의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과 같이 Spanier의 결혼불만족척도, Spanier의 1문항 척도 및 Schumm의 KMSS와 한국형결혼만족도 척도의 하위문항은 부정적 의사소통은 부적상관을, 나머지 항목은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 기존의 결혼만족도와 준거관련타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수렴타당도: 한국형 결혼만족도 하위요인과 스트레스 척도와의 상관계수

하위영역 스트레스 척도	교류적 과정		정서적 과정				인지적 과정						
	효율적 의사 소통과 갈등해결	부정적 의사 소통	존중	배려	성· 애정 표현	여가 및 시간 함께 보내기	부모 역할	개인적 역할	가사 역할	친인척 관계 역할	경제 역할	종교심	응집성
신체적 증상	-0.35	+0.10	-0.37	-0.33	-0.34	-0.29	-0.30	-0.30	-0.17	-0.17	-0.20	-0.19	-0.34
긍정적 정서상태	0.47	-0.25	0.40	0.42	0.40	0.33	0.47	0.36	0.38	0.28	0.32	0.25	0.47

<표 10> 한국형 결혼만족도 하위척도와 기존척도와의 상관계수

구 분	교류적 과정		정서적 과정				인지적 과정						
	효율적 의사 소통과 갈등해결	부정적 의사 소통	존중	배려	성· 애정 표현	여가 및 시간 함께 보내기	부모 역할	개인적 역할	가사 역할	친인척 관계 역할	경제 역할	종교심	응집성
Spanier의 결혼 불만족도	-0.42	+0.21	-0.42	-0.39	-0.37	-0.31	-0.31	-0.30	-0.17	-0.29	-0.18	-0.20	-0.34
Shumm의 KMSS	0.71	-0.17	0.73	0.75	0.67	0.57	0.68	0.61	0.56	0.54	0.47	0.35	0.77
Spanier의 1문항 척도*	0.69	-0.17	0.67	0.68	0.62	0.56	0.60	0.55	0.54	0.54	0.50	0.36	0.72

\* “여러분의 결혼생활을 종합해 볼 때 여러분의 만족정도를 표시해주시요”에 대한 척도

〈표 11〉 한국형 결혼만족도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 $\alpha$ ) 신뢰도 계수

구 분	교류적 과정		정서적 과정				인지적 과정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부정적 의사소통	존중	여가 및 시간 함께 보내기	성·애정 표현	상대방 배려	규범적 역할					이데올로기	
							부모 역할	개인적 역할	가사 역할	친인척 관계역할	경제 역할	종교심	응집성
전 체	.70	.90	.93	.90	.81	.91	.87	.80	.68	.87	.77	.88	.87
남편용	.62	.91	.92	.89	.77	.91	.87	.69	.68	.87	.78	.89	.85
아내용	.67	.90	.94	.90	.84	.91	.88	.85	.67	.88	.80	.89	.87
문항수	4	12	8	8	4	8	4	4	4	4	4	4	4

또한 “부모역할” 하위척도의 준거관련타당도를 살펴보면, 정현숙(1997)의 RKMS와 “부모역할” 하위척도와의 상관계수는  $r=.67$ 로 높게 나왔다. Perlín과 Schooler(1978)의 부모긴장척도와 “부모역할” 하위척도간의 상관계수는  $r=-.19$ 로 낮게 나타나 부모역할척도의 준거관련타당성도 높게 나타났다.

### 3. 신뢰도 분석

한국형 결혼만족도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의 내적합치도 지수를 산출하였다. 〈표 11〉과 같이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는 .62~.93으로 부정적의사소통과 경제적 역할의 척도가 다소 낮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대부분 하위영역이 신뢰성이 있는 척도임을 알 수 있다.

## V. 검사의 활용

“한국형 결혼만족도척도”는 다차원적인 결혼의 질과 결혼만족도 척도로 결혼의 질을 교류적, 정서적, 인지적 영역으로 이론화하였으며, 이러한 영역별로 하위요인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임상현장에서는 부부관계의 문제영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위영역별 결혼의 질 점수와 만족도 점수를 계산하여 부부의 문제영역에 대한 프로파일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각 하위영역의 척도를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본 척도의 응답은 0-4점의 5점 Likert 척도이나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1~5점 척도로 변용하여 이용할 수도 있다.

특히 본 척도는 부부관계에서 이론적으로도 중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사전조사에서 우리나라 부부들이 특히 중요시 여기는 교류적 영역의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은 1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정서적 영역의 “존중”, “여가 및 시간 함께 보내기”, “상대방 배려”는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기 위하여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각 하위영역을 개별적 척도로 이용할 수도 있다.

본 결혼만족도척도를 다차원척도로 이용하여 부부의 결혼만족도 영역간의 비교를 위해서는 4문항을 기준으로 각 하위영역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4문항을 기준으로 각 하위영역의 점수를 조정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본 결과는 전체 연구대상의 평균값으로 우리나라 중산층의 평균적인 결혼만족도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족생활주기와 직업 등 부부의 다양성에 따른 준거는 추후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전체문항을 기준으로 한 하위척도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본 척도의 응답척도는 0~4점의 척도로 각 하위영역별 점수는 0~16점의 분포를 갖는다. 본 질문지는 결혼의 질과 결혼만족도를 함께 측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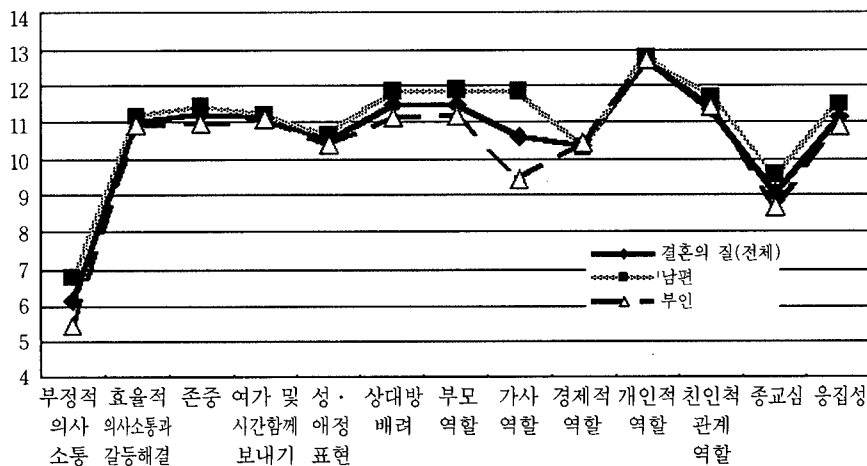
〈표 12〉의 결혼의 질과 결혼만족도의 하위영역별 남편과 아내 및 전체 집단의 평균점수를 상호 비교하기 위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그림 3〉과 같다. 〈표 12〉와 같이 결혼만족도와 결혼의 질 하위영역간의 상관계수는  $-.43\sim.94$ 로 높은 상관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본 논문의 목

〈표 12〉 한국형 결혼의 질과 만족도척도의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계수

구 분		교류적 과정		정서적 과정				인지적 과정						
		효율적 의사 소통과 갈등해결	부정적 의사 소통	존중	여가 및 시간 함께 보내기	성· 애정 표현	상대방 배려	규범적 역할					이데올로기	
								부모 역할	개인적 역할	가사 역할	친인척 관계역할	경제 역할	종교심	응집성
결 혼 의 질	전체	6.13 (3.63)*	11.0 (2.73)	11.20 (3.22)	11.11 (3.38)	10.50 (3.50)	11.47 (3.05)	11.50 (3.12)	10.59 (3.53)	10.34 (3.08)	12.70 (2.81)	11.38 (3.08)	9.06 (4.61)	11.14 (3.24)
	남편	6.80 (3.29)	11.17 (2.60)	11.44 (2.97)	11.22 (3.18)	10.65 (3.28)	11.86 (2.80)	11.90 (2.75)	11.84 (2.34)	10.33 (3.07)	12.77 (2.64)	11.69 (2.81)	9.55 (4.41)	11.49 (3.01)
	아내	5.46 (3.83)	10.91 (2.82)	10.97 (3.45)	11.07 (3.56)	10.41 (3.67)	11.11 (3.25)	11.16 (3.38)	9.42 (4.06)	10.44 (3.07)	12.70 (2.90)	11.42 (3.19)	8.69 (4.74)	10.88 (3.36)
결 혼 만 족 도	전체	9.40 (3.40)	10.98 (3.04)	11.30 (3.37)	11.36 (3.40)	10.88 (3.42)	11.54 (3.19)	11.57 (3.35)	11.06 (3.50)	11.04 (2.91)	12.67 (2.92)	11.40 (3.36)	10.43 (4.11)	11.38 (3.28)
	남편	9.29 (3.48)	11.40 (2.70)	11.69 (3.04)	11.50 (3.16)	11.05 (3.23)	12.10 (2.86)	12.15 (2.89)	12.17 (2.45)	11.26 (2.83)	12.92 (2.72)	11.97 (3.01)	11.18 (3.63)	11.74 (3.05)
	아내	9.71 (4.36)	10.76 (3.20)	11.02 (3.62)	11.37 (3.56)	10.74 (3.49)*	11.17 (3.36)	11.10 (3.58)	10.13 (3.99)	11.05 (2.87)	12.57 (2.97)	11.32 (3.45)	9.95 (4.35)	11.25 (3.34)
상관 계수 **	전체	-0.43	0.90	0.94	0.92	0.90	0.91	0.90	0.86	0.81	0.88	0.91	0.72	0.92
	남편	-0.58	0.90	0.94	0.91	0.91	0.92	0.87	0.82	0.79	0.87	0.90	0.66	0.94
	아내	-0.65	0.91	0.94	0.93	0.94	0.89	0.93	0.85	0.84	0.89	0.92	0.75	0.92

\* 괄호 안은 표준편차 값임

\*\* 결혼의 질 하위영역과 결혼만족도 하위 영역간의 상관계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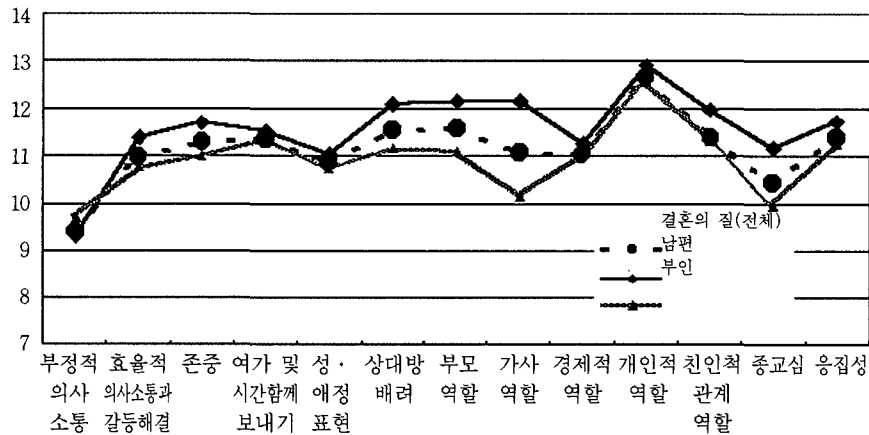
〈그림 2〉 결혼의 질 척도의 하위영역별 평균점수

적에 벗어나므로 본 논문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그림 2〉와 〈그림 3〉과 같이 결혼만족도와 결혼

의 질 점수는 전 가족생활주기동안 남편들이 아내들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결혼만족도와





〈그림 3〉 결혼만족도 척도의 하위영역별 평균점수

관련된 이전 연구들과 일치하며, 본 척도의 이론적 타당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결과이다.

## VI.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가족학 분야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결혼만족도척도가 외국의 척도를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하에 한국실정에 맞는 결혼만족도 척도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고찰과 함께 가족전문가 20명과 183명의 결혼한 사람들과의 인터뷰 및 인터넷의 토론광장을 이용하여 두 차례의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가족전문가 10명에 의한 타당도 검사와 289쌍의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과정에 대한 이론적 틀에 따라 부부관계의 과정을 교류적 과정, 정서적 과정 및 인지적 과정으로 분류하고 각 과정별 하위영역을 설정하였다. 한국형 결혼만족도척도는 교류적 과정의 두 하위영역(부정적 의사소통,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과, 정서적 과정의 네 하위영역(존중, 상대방배려, 성·애정표현, 여가 및 시간 함께 보내기) 및 인지적 과정의 여섯 개의 하위영역(부모역

할, 개인역할, 가사역할, 친인척관계역할, 경제역할, 종교심, 응집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72문항의 척도이다. 본 조사 결과 한국형 결혼만족도척도는 안면타당도와 내용타당성, 구인타당도 및 수렴타당도가 높으며, 준거관련타당도도 높게 산출되었다. 또한 내적합치도지수도 높아 신뢰성 있는 척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류적 과정의 부정적 의사소통은 신뢰도가 .68로 다른 척도에 비해 낮다. 그러나 준거관련타당도나 수렴타당도는 적절한 수준이므로 타당도는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후연구에서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를 부부간의 이차관계에서의 결혼의 질에 대한 개인의 만족 정도를 측정하는 개인적인 평가로 정의하였으므로, 두 사람의 다양한 상호작용과정을 나타내는 결혼의 질이 이론적으로 제안되었으며, 결혼의 질 하위 영역에 대한 배우자 각자의 만족정도를 결혼만족도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한 측정도구로 결혼의 질과 결혼만족도를 함께 산출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본 척도는 하위영역별로 4문항이 기준이나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부부들이 중요시여기는 “효율적 의사소통”, “존중”, “여가 및 시간 함께 보내기”, “상대방 배려”는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기 위하여 8문항~1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므로 개발척도로도 이

용이 가능하다.

이상의 특성을 갖는 한국형 결혼만족도척도는 가족학 분야의 결혼만족도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며, 임상분야에서는 진단을 위한 평가자료로도 그 효용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결혼만족도 분야 연구에서 지금까지 외국의 척도를 그대로 이용함으로써 행복한 결혼생활을 설명하는 변인에 대한 우리나라 부부들의 자료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본 척도는 이론적으로 중요한 결혼만족도의 하위영역 뿐만 아니라, 현재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상으로 이들이 중요시여기는 결혼의 특성을 포함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부부관계의 특성을 잘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척도를 통해 가족학 연구의 이론적 발전과 부부들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결혼만족도 척도는 상담이나 임상현장에서는 결혼생활의 문제영역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그 유용성이 인정되어 왔다. 특히 가족상담영역에서 상담을 하기 전 결혼과 가족에 대한 다양한 측정도구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부부관계를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부재로 진단의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가 효과적인 진단자료로 이용될 수 있어, 가족상담분야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학은 다른 학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학문분야이다.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확고한 이론에 기반을 둔 측정도구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가족학에서 다루는 개념들에 대한 과학적인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형 결혼만족도척도”는 가족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주며, 다양한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본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많은 연구를 통해 본 척도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더 많은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 ■ 참고문헌

유영주, 정민자(1993). 가족생활교육 및 상담. 한국가

- 족학연구회 편. 가족학(pp. 355-394). 하우.
- 이은혜(1995). 아동발달의 평가와 측정. 교문사.
- 정현숙(1997). 결혼만족도 연구와 척도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방향과 척도의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5(1), 191-204.
- 정현숙(2001).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개발을 위한 이론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9(11), 89-106.
- 정현숙 · 유계숙(2001). 가족관계. 학지사.
- Anderson, S. A. & Sabatelli, R. M. (1990). Differentiating differentiation and individuation: Conceptual and operational challenge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8, 32-50.
- Biddle, B. J. (1976). *Role theory: Expectations, identities, and behaviors*. Chicago: Dryden Press.
- Boughner, S., Hayes, S., Bubbenzer, D., & West, J. (1994). Use of standardized assessment instruments by marital and family therapists: A surve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0(1), 69-75.
- Burr, W., Day, R., & Bahr, K. (1993). *Family science*. Pacific Grove,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Busby, D. & Christensen, C. (1995). A revision of the Dyadic Adjustment Scale for the use of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s. *Journal of Marital & Family Therapy*, 21(3), 289-299.
- Cox, F. (1999). *Human Intimacy: Marriage, the family and its meaning*.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Freeston Mn & Plechaty, M. (1997). Reconsideration of the Locke-Wallace Marital Adjustment Test: Is it still relevant for the 1990s?. *Psychological Reports*, 82, 419-425.
- Galvin, K. M. & Brommel, B. J. (1982). *Family communication*. Scott: Foresman.
- Green, R. & Woody, D. (1998).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MSS in a sample of Afro-Americans. *Psychological Reports*, 82(1), 255-258.
- Imamoglu, O. & Yesim, Y. (1997). Dimensions of marital relationships as perceived by Turkish

- husbands and wives. *Genetic, Social &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23(2), 211-232.
- Juni, S. & Grimm, D. (1994). Marit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dyadic gender-role constellation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2(2), 106-112.
- Kieffer, C. (1977). New depths in intimacy. In R. Libby and R. Whitehurst(Eds.). *Marriages and alternatives: Exploring intimate relationships*(pp. 267-293). Glenview, IL: Scott, Foresman.
- Margolin, G. (1988). Marital conflict is not marital conflict. In R. Peters et al.(Eds.). *Social learning and systems approaches to marriage and the family*(pp. 193-216). New York: Brunner/Mazel.
- Perlin, L. &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2-21.
- Radloff, L. (1977). The CESD scale: A self 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oach, A., Frazier, L., & Bowden, S. (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537-546.
- Rosen, R., et al. (2000). The Female Sexual Function Index(FSFI): A multidimensional self-report instrument for the assessment of female sexual function.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26, 191-208.

〈부록〉 한국형 결혼만족도 하위요인간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구 분	교류적 과정		정서적 과정				인지적 과정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1)	부정적 의사소통 (2)	존중 (3)	배려 (4)	성·애정 표현 (5)	여가 및 시간 함께 보내기 (6)	부모 역할 (7)	개인적 역할 (8)	가사 역할 (9)	친인척 관계 역할 (10)	경제 역할 (11)	종교심 (12)	응집성 (13)
1	1.00												
2	0.24	1.00											
3	0.80	0.27	1.00										
4	0.78	0.20	0.84	1.00									
5	0.71	0.16	0.70	0.70	1.00								
6	0.64	0.14	0.65	0.69	0.59	1.00							
7	0.69	0.22	0.69	0.71	0.59	0.54	1.00						
8	0.57	0.24	0.60	0.69	0.49	0.47	0.55	1.00					
9	0.57	0.13	0.61	0.65	0.51	0.46	0.60	0.46	1.00				
10	0.49	0.26	0.58	0.57	0.46	0.44	0.48	0.51	0.48	1.00			
11	0.52	0.12	0.52	0.52	0.43	0.54	0.50	0.51	0.44	0.43	1.00		
12	0.31	0.07	0.35	0.33	0.35	0.21	0.35	0.23	0.31	0.20	0.21	1.00	
13	0.77	0.24	0.80	0.81	0.69	0.65	0.70	0.68	0.59	0.59	0.60	0.41	1.00
평균	32.99	12.07	22.40	22.94	10.53	22.21	11.50	12.70	10.59	11.38	10.34	9.06	11.14
sd	8.20	1.97	6.43	6.09	3.50	6.75	3.12	2.81	3.53	3.09	3.08	4.62	3.24
문항수	12	4	8	8	4	8	4	4	4	4	4	4	4

- Sabatelli, R. (1984) The marital comparison level index: A measure for assessing outcomes relative to expect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537-546.
- Shek, D. (1995). The Chinese version of the Dyadic Adjustment Scale: Does language make a difference?...*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1(6), 802-811.
- Shek, D. (1998).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MSS for Chinese parents. *Psychological Reports*, 83, 81-82.
- Schumm et al. (1986).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KM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381-387.
- Spanier, G. (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15-28.
- Turner, L. & West, R. (1998). *Perspectives on family communication*. London: Mayfield Publishing Company.
- Wadsby, M.(1998). Evaluation of the Swedish version of the ENRICH marital Inventory. *Nordic Journal of Psychiatry*, 52(5), 379-388.